



냉전기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 방송과 對日라디오방송

: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파열과 수렴

윤상길 신한대학교 미디어언론학과 부교수*

냉전기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은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적 양상이 '공산 vs 자유'라는 '하나의 충돌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역사적 사례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이 개시된 1955년 전후 시점부터 KBS의 대외방송이 강화되는 1960년대 초반기를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시각에서 KBS의 대일(對日)방송이 등장, 변용되어가는 과정을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파열과 수렴'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문화냉전이 파열되는 시초는 식민지 시기로부터 주어졌지만 파열은 6.25전쟁기를 거치며 본격화되었다. 6.25전쟁기 사상심리전 매체였던 VOA와 VUNC의 증계를 위해 유엔사령부가 NHK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NHK의 방송출력은 증강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도치 않게 한반도가 사실상의 일본방송 권역에 포함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경계는 냉전질서라는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흐려지게 되었고, 이는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일본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과의 문화적 경계가 흐려지는 1950년대 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해양의 국가경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이 격화되는 1955년 무렵, 상대 국가의 영토로 방송전파를 보냄으로써 선전전을 강화하고자 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은 개시되었다.

* cyrus92@shinhan.ac.kr

그러나 4.19 혁명으로 인해 자유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컸던 만큼, 대일방송 또한 일정정도 기존의 일방적인 선전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한일 간의 외교적 대립이 만들어내는 문화냉전의 파열은 점차 수렴되는 징후를 보였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1일에 단행된 독립방송국 '서울국제방송국'의 출범은 이전 시기의 '2중방송'의 기술적·제도적 틀에서 한 단계 도약한'심리전의 요람'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파열되었던 동아시아 문화냉전이 다시 수렴되는 첫 출발점이었다. 무엇보다 서울국제방송국의 모델이 같은 처지의 반공국가였던 대만의 심리전 방송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또한 1961년 7월 '서울국제방송국'의 발족 이후 표면적으로는 대일방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경제개발을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정부의 대일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재일교포의 사상적 이탈과 반역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대일방송의 성격을 대공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정책이 낳은 결과였다. 이로써 1950년대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파열선은 1960년대에 들어 본래 문화냉전의 기조로 수렴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KEYWORDS 자유대한의 소리 방송, KBS, 문화냉전, 파열, 수렴

1. 서론: 탈중심화된 냉전연구와 對日 전과전쟁

6.25전쟁 직후인 1953년 8월 15일은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Voice of Free Korea) 영어방송이 시작된 날이다. 단순한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날짜에서 의미심장한 점은 8월 15일이라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8월 15일이 일본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상징하는 날짜라고 했을 때,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Voice of Free Korea) 영어방송의 시작은 '그 무엇인가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다시 다른 방식으로 이 방송의 개시를 평가하자면, 1953년 8월 15일에 개시된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 영어방송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KBS가 독자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대외방송이었다(KBS연감편찬위원회, 1961, 199쪽). 무엇으로부터의 독자성인 것일까?

6.25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국의 라디오 방송은 초창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50Kw의 서울중앙방송국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방방송국의 출력은 500W 이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6.25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KBS 네트워크가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어 심리전 매체로 운용되면서부터 KBS의 송신시설과 방송역량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장영민, 2012, 442~443쪽). 그러나 개전초기에 심리전 매체로서 KBS 운영통제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양여했던 까닭에, 미국에 의해 방송주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였다. 1952년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 한국어방송'의 부산정치파동 보도와 이승만 정부에 의한 VOA방송의 KBS 중계방송 중단사례에 대한 장영민(2011)의 연구에서도 제시하고 있었던 바처럼¹⁾, 일방적인 미국 주도의 전과전(電波戰)과 방송주권 침해에 자극되어 한국 정부는 KBS의 '자유

1) 장영민(2011)에 의하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방송'의 부산정치 파동보도를 통해 한국 내정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태에 자극받아, 한국정부는 "휴전이 되자마자 미국정부에 전 세계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라디오방송 시설의 원조를 요청"(104쪽)하였다.

대한의 소리'방송 개시를 통해 독자적인 대외방송의 틀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미국 주도의 냉전적 전과전쟁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이승만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외방송을 시작한 역사적 흐름에서, 1955년 12월 1일에 개시된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이 한국 대외방송의 본격화라고 평가되는 것(KBS연감편찬위원회, 1961, 199쪽) 또한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반일 민족주의를 통치이념의 하나로 삼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가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 개시의 직접적 계기였지만, 무엇보다 당시 한일 간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주요한 축이 미국과 일본 간의 합작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보자면²⁾, 본고에서 다룬 1950년대 이후 방송전파를 통한 동아시아 문화냉전은 '한국과 일본 간의 대립'이라는 또 하나의 분할선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한국의 미디어역사학계는 비교적 활발하게 냉전체제와 방송 간의 관계에 대해 학술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한반도에 도달한 외국의 대외방송(VOA, VUNC, 유엔라디오 등)에 대한 연구들(장영민, 2008, 2009, 2011, 2012, 2014 ; 김영희, 2009, 2012, 2014 ; 고바야시 소메이, 2016 ; 小林總明, 2009, 2010, 2012)은 방대한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광복 이후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 한반도에서 청취 가능했던 외국 대외방송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냉전체제 아래의 한국 방송이 심리전 및 전과전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정작 한국의 대외방송에 대

2)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 2005/2010)에 의하면, "일본은 냉전에 휩쓸려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냉전 성립의 당사자임을 부인하며 슬며시 미합중국과의 합작으로 냉전을 성립시켜왔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제가 되었던 역사적인 맥락은, 의심할 것 없이 1949년 신중국(新中國)의 성립과 잇따른 한국전쟁으로 인해 공공연한 것이 되어버린 미합중국의 극동정책의 일대 전환이었다"(37쪽).

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윤상길·이정훈(2019)의 연구를 통해 1950년대 서울중앙 방송국(KBS) 대외방송의 기술적·제도적 기반과 주요 프로그램과 청취자 반응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가능해 졌다. 또한 이 연구는 이승만 정부가 대외방송을 본격화하고자 했던 정치적 동기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구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었다. 이들에 의하면, 이승만 정부의 독자적인 대외방송 시도는 아이젠하워 정부의 새로운 동아시아 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이승만 정부의 '벼랑끝 진술'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특히 이승만 정부의 외교정책이 북진정책에서 반일정책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감에 따라 대일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주 대상시기가 1950년대였던 탓에 1960년대 이후의 변화까지 포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록 대일방송을 과장된 선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는 외국인들의 반응을 제시함으로써 중층적인 문화냉전의 일 단면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대립'이라는 또 하나의 분할선을 배경으로 이뤄졌던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복합적인 양상을 중점적으로 포착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냉전 연구에서는 탈중심화가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냉전의 봉쇄적 측면, 즉 주류 국가들이 적의 도전에 맞서 각자의 영향권에서 패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패권확보를 위해 자원의 유통을 통제하는 차원에 해당하는 헤게모니적 측면인 문화냉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Cummings, 1992, pp.88~89), 냉전연구의 탈중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냉전을 미소 양대 강국이 주도하는 동서진영을 축으로 하는 세계 시스템의 결과로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냉전'³⁾이라는 틀을 통해 지역사회와 서민생활, 사람들의

3) 기사 도시히코와 쓰치야 유카(貴志俊彦·土屋由香, 2009/2012)의 정의에 따르자

지적·창조적 활동 속에 냉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냉전상(冷戰像)을 그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기존의 양대 강국 중심의 냉전관을 탈중심화하여 한층 더 복안(複眼)적이며 중층적인 냉전상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한 것이다(貴志俊彦·土屋由香, 2009/2012, 16쪽).

이러한 이론적 경향과 윤상길·이정훈(2019)의 연구가 일부 그 가능성을 제기했던 견해에서 보자면, 냉전기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 일부 어방송은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적 양상이 ‘공산 vs 자유’라는 ‘하나의 충돌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역사적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 동아시아 전파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KBS는 대일방송을 통해 미국 주도의 냉전 전파전에 파열음을 냈었던 반면, 한국이 국교를 맺은 첫 나라였던 대만과는 매우 긴밀한 협조체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처럼 그간 냉전기 사상심리전으로서의 전파전쟁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KBS의 대일(對日)방송에 대한 연구는 李在武(1981)와 KBS日本語放送 편(2005)을 제외하곤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이 연구들 또한 대부분 내용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으로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시야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 일부 어방송이 개시된 1955년 전후 시점부터 KBS의 대외방송이 강화되는 1960년대 초반기를 중심으로 하여 KBS의 대일(對日)방송이 등장, 변용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적으로 특수한 다수의 역사적 현실과 경험에 의해 주도된 중층적인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간의 경계 - 문화적, 주권적 경계 - 와 관련된 맥락적 상황과 외교적 갈등과 화해, 그리고 이를 배경

면, 문화냉전이란 미국이 소련 양국이 정치, 경제, 군사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오락, 생활양식까지를 포함하여 헤게모니를 확립하고, 세계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전개한 문화·정보·미디어 전략 전반을 가리킨다(16쪽).

으로 하여 이뤄진 대외방송의 제도적 변화와 대일방송의 내용 변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탈식민의 상황에서 ‘반일(反日)’의 담론 전략이 필요했던 정치·경제적 맥락을 고려할 때,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이 가진 복합적 성격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가진 특수성을 극명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일본 아베정부에 의해 촉발된 한일 외교갈등을 역사적 시야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방송전문지(〈방송〉, 〈주간방송〉, 〈월간방송〉 등)에 게재된 기사와 일부 방송사료를 활용하는 역사적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2. 파열 : 對日외교분쟁과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의 등장

권현익(Kwon, 2010/2013)의 표현을 빌리자면, “냉전은 하나의 충돌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글로벌 냉전의 역사는 지역적으로 특수한 다수의 역사적 현실과 다양한 인간 경험으로 이루어져”(17~18쪽)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동아시아 냉전체제 속의 국가들은 ‘동서 대립’이라는 식의, 일관성 있는 하나의 개념적 전체에 억지로 옥여넣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정치적 갈림(bifurcation)을 경험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미소관계에 의해 동아시아에 냉전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인 것이었다 해도, 그 분할선이 한반도의 38도선으로 수렴되었다는 점, 혹은 타이완과 중국대륙 사이에 놓인 타이완해협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은 실제적으로는 동아시아 냉전구조가 우연으로 가득 찬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즉, 그것은 1949년 이후의 중국 내부(공산당/국민당)의 대립과 ‘해방’ 이후 점차 드러나기 시작한 한반도 내부의 대립관계, 그리고 미·소 강대국의 대립이라는 복수의 권력관계로부터 중층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연동

하는 우발적인 힘의 각축에 의해 중층결정되었다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저 복수(複數)의 분할선은 실은 대단히 유동적인 것이며 약간의 불균형에 의해서도 달리 이동했을 가능성 역시 존재했다(丸川哲史, 2005/2010, 37~38쪽). 여기서 1950년대 초 한국과 일본 간의 대립 또한 이 복수(複數)의 분할선 중의 하나였고, 이는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파열선이기도 했다.

1) 파열의 시작 : 흐려진 경계

광복 후 한국의 '경계구축'(bordering)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주체는 미국이었고, 특히 6.25전쟁 기간을 경유하면서, 일본과의 문화적 관계는 반일민족주의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잡하고 애매한 형태로 구축되게 되었다. 이는 식민지 시대로부터의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는 것이기도 했고 냉전질서라는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었다(김성민, 2017, 52~55쪽).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한반도를 무대로 한 전과전쟁의 주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미국의 소리 한국어방송'은 본래 제국 일본에 속했던 식민지 조선을 겨냥했던 것이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1942년 8월 29일 첫 전파를 발사한 미국의 소리 한국어방송은 미국의 대일 심리전 방송이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도 미국정부의 정책을 선전하고, 문화 등 다방면으로 미국을 알리는 매체로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방송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송신되던 단파방송이었으므로, 거리와 전파특성 때문에 수신감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광복 직후부터 미국의 소리는 KBS네트워크를 통해서 중파로 변조되어 전국에 중계됨으로써 많은 한국인에게 친숙한 방송이 되었다(장영민, 2011, 60~61쪽).

주목할 점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KBS네트워크가 유엔군사령부 심리전과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어 심리전 매체로 운용되면서⁴⁾, VOA 뿐만 아니라 유엔군총사령부 방송(Voice of United Nations Command,

VUNC)이 방송의 중계를 위하여 NHK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6.25 전쟁기 “VOA 뉴욕제작국에서 지상 케이블로 보낸 프로그램이 샌프란시스코 송신소에서 단파로 송출되면, 호놀룰루와 마닐라에서는 그대로 단파로 중계하였고, KBS도 단파방송을 중파로 변조하여 아침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중계방송을 하였다. 여기에 일본 NHK네트워크도 한동안 중파와 단파로 한반도를 향하여 중계방송과 재방송을 하였다”(장영민, 2014, 258~259쪽). 또한 6.25전쟁 발발 직후인 6월 29일에 급작스럽게 첫 전파를 내보냈던 VUNC는 처음부터 NHK 도쿄방송국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1951년 1월 말부터는 더 크고 시설이 좋은 스튜디오로 옮겨서 제작하였지만, 기술적인 것은 여전히 일본인 손을 거쳤다. 이렇게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은 전쟁이 끝난 뒤 오키나와와 한국에 자체 방송국을 세울 때까지 일본 전역의 NHK 지방 방송국 여러 곳에서 송신을 하였다. 114기의 중파송신기와 7기의 단파송신기를 운용하던 NHK는, 방송설비의 양도와 임대 등은 전파감리위원회와 의회의 인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방송법에 저촉함에도 불구하고, 긴급사태의 발발을 사유로 내세운 맥아더 사령부의 지령에 따라서 10Kw 이상의 출력 성능을 가진 송신기 약 20기를 유엔사령부에 빌려주는 등 라디오 심리전 방송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였다”(장영민, 2008, 287쪽). 특히 NHK 네트워크 가운데 심리전 방송에 처음부터,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된 방송국 채널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각 방송국으로 송출하였던 도쿄제2방송(JOAB)과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는 큐슈의 후쿠오카(JOLK)와 시네마 현의 마쓰에(JOTK)방송국이었다. 도쿄제2방송의 출력은 50Kw에서 곧 100Kw로 증강되어 한반도 전역은 물론 만주와 연해주까

4) 장영민(2014)에 의하면, “KBS서울방송국은 1950년 6월 28일 새벽 인민군의 손에 넘어가 곧바로 대남심리전 방송을 하였고, VOA를 중계한 것은 겨우 대전, 부산, 마산 방송국에 불과하였다. 단파방송인 VOA는 단파라디오수신기가 매우 드물었던 한국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으므로, KBS네트워크의 중파중계방송은 대단히 중요하였다. 나아가 한반도 전역에서 방송을 듣게 하는 것이 시급하였다”(263쪽).

지 커버할 수 있었고, 출력 10Kw인 두 지방방송국의 프로그램도 한반도 전역에서 청취할 수 있었지만, 특히 남부의 수신감도는 대단히 양호하였다(장영민, 2008, 289쪽).

결국 6.25전쟁기 사상심리전 매체였던 VOA와 VUNC의 중계를 위해 유엔사령부가 NHK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NHK의 방송출력은 증강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도치 않게 한반도가 사실상의 일본방송 권역에 포함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경계는 냉전질서라는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흐려지게 되었고, 이는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일본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인용구는 언론인 김을한이 방송잡지에 게재한 체험담의 일부인데, 6.25전쟁 당시 일반시민들의 VOA와 VUNC 방송 뿐만 아니라, NHK방송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이십여년 전 6.25동란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갇혀 있던 백만 시민이 그 무서운 탄압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어 나간 것은 라디오의 덕택이었다. 공산 괴뢰들은 어디이고 점령만 되면 우선 외부세계를 격리 차단시켜 그곳의 민중들로 하여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며 또 외부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전혀 모르게 하는 것이 늘 하는 버릇이지만 지난번 6.25 때에도 남하를 못한 사람들이 제일 고통으로 느낀 것은 괴뢰군이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갑자기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서 외부세계의 일을 전혀 알 길이 없게 된 것이었다. 당시 필자도 서울시내 모처에 숨어 있었는데 밤중이 되면 대문을 잠그고 다락 속에 감추어 두었던 조그만 포터블 라디오를 꺼내다가 무거운 솜이불 속에서 방송을 듣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었다. 온 몸의 신경을 대문 쪽으로 기울이고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모기소리 만한 방송을 듣던 그 때 그 스릴은 이제와서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즐거운 일과였다.....(중략)....어느 날 저녁에는 다이얼을 돌

리다가 동경 고리쿠엔(後樂園)에서 하는 '나이타(夜間野球)의 중계방송이 들려와서 매우 인상적이었다. 밖에서는 괴뢰군의 순찰병이 空砲를 땡땡 놓고 다니는데 이불 속의 라디오에서는, “투수가 볼을 던졌습니다. 홈런! 홈런!”하고 아나운서가 신이 나서 떠드는 소리를 들으니 마치 꿈나라의 일을 듣는 듯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敵治 90일동안에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들켜서 불행하게 된 사람도 많겠지만, 그 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암흑 속에서 광명을 찾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게 된 것은 오로지 라디오에 의해서 항상 용기를 얻게 된 때문이었으니 라디오의 공로도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이 6.25때에 하도 고생을 하여 라디오의 고마움을 알게 된 탓은 아니겠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라디오의 존재와 필요를 높게 평가한다(김우환, 1971.9).

이와 같이 남한 주민이 전쟁 상황을 가장 궁금하게 여겼던 시기는 전쟁 발발 직후 몇 달 동안이었다. 국군의 퇴각이 급작스러웠고, 서울 중심의 기존 매스컴이 완전히 붕괴되어버렸던 상태였으므로, 일반 주민이 접할 수 있던 매체는 전단과 라디오 뿐이었다. 그러나 “국군이 반격을 하고 있으니 동요하지 말라, 끝까지 사수하라”는 왜곡된 정부의 발표와 검열은 오히려 악성소문을 유포시켰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부산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전력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전황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 방송과 VUNC방송을 열심히 청취하였고, 이런 방송이 전하는 소식에 신뢰감을 가졌다고 한다. 큰 불안감에 휩싸였던 주민들은 미국의 정책과 태도에 큰 관심을 가졌고, 전단과 VUNC와 미국의 소리와 같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또한 인민군 점령 아래서 몰래 들었던 라디오 방송은 유일한 정보원이기도 하였다(장영민, 2008, 313쪽).

2) 해양주권(경계) 설정을 둘러싼 한일 간 외교마찰과 對日방송의 전개

대외방송의 체계적인 틀이 마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방송이 개시되고 이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1957년 말 무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외 거주 동포 및 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외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5년 12월 1일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이 시작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은 본격적인 대외방송의 출발점으로서 가장 먼저 대일방송이 출범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배경이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 명의로 국무원 포고 14호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 즉 '평화선'(平和線) 발표를 하였다. 한국이 평화선을 설정한 직접적 동기는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를 앞두고 그동안 한일 간의 어업경계선 역할을 해 왔던 맥아더선의 폐지가 예정된 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은 평화선의 설치목적은 어업자원 보호, 필연적으로 발생될 한일 간 어업분쟁 사전방지, 주권 보존 조치로 설명했지만, 이 시기에 200해리에 근접한 평화선 설정은 국제적으로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화선 선포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발을 샀다(박진희, 2005, 79~80쪽). 평화선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은 1954년에 들어서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1954~1955년 한일 간에는 평화선을 둘러싸고 무력충돌 위험성이 점차 높아졌다. 특히 일본 내 대한(對韓) 강경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일본은 무력동원 계획(강경책) 뿐만 아니라 외교채널을 통한 여론조작(온화책)을 시도하였으나 이러한 일본의 강온(強溫) 이중전략은 그리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오히려 한국의 대일강경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1955년 11월 17일 연합참모본부는 공보처를 통해 '필요에 따라서는 평화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에 대하여 발포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박진희, 2005,

141~144쪽).

대일방송의 담당자였던 아래 인용문 윤태로(尹泰魯) 씨의 회고에 의하면, 반일 민족주의를 통치이념의 하나로 삼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적 계기였지만, 일본과의 해안선 분쟁에 대한 대책 수립이 보다 근본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해양의 국가경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이 상대 국가의 영토로 방송전파를 보냄으로써 선전전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 대일방송 개시의 주된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윤상길·이정훈, 2019, 23쪽).

당시 공보실장이 갈홍기 씨고 방송국장이 돌아가신 이운용 씨였는데, 그때 아마 平和線이 선포되고 대통령께서 대일방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일교류정상화보다는 오히려 우리 평화선 선포한 뜻을 일본국민에게 인식시키고 평화선을 수호하고 해안선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어선들이 우리 남해안에 침투해 어장을 말리다시피 했고 그래서 국가이익을 옹호하고 거기에 덧붙여 일본에서 침투해 오는 조총련계 또는 북한에서 밀파되는 간첩들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화선을 선포하고 그걸 일본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동시에 우리국민에게도 각성시키자는 뜻에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방송, 1965.12.11., 4면)

이 회고록에서 대일방송의 또 다른 의도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일본 내 조총련계 침투에 대한 경계인데, 이는 당시 일본 땅의 조선민들 사이의 사상적 이탈을 막기 위한 방첩(counter-intelligence), 즉 사상심리전(思想心理戰)의 의도였다.

이에 따라, 대일방송 시작 후 가장 먼저 평화선에 관한 「코리아 리퍼블릭」의 사설을 번역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이 방송을 모니터링한 일본 측 언론은 한국이 대일방송 개시일부터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반응하기

도 하였다고 한다(방송, 1965.12.11., 4면).

1955년 12월 1일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이 시작될 당시 밤 9시부터 15분 동안 음악과 뉴스해설로 방송되던 대일방송은 1956년부터 완전한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여 방송관계 책임자와 그 밖의 관계당국자 그리고 교육, 언론계의 권위자들로 구성된 대일방송강화위원회(對日放送強化委員會)까지 두어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1957년 6월 1일에 방송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변경하고 시간을 종전의 2배인 30분으로 연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일방송이 시간을 연장하고 활발한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은 1953년 10월 이래 결렬되었던 제3차 한일회담이 1957년부터 제4차 회담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윤상길·이정훈, 2019, 38쪽).

대일방송 강화책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대일관계(對日關係)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대일방송 초기의 일화에서도 발견된다. 대일방송 초기 방송제작 담당자들은 대일방송의 원고를 쓰는 데 있어서도 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는 경쟁심의 발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윤태로 씨의 회고에서는, “원고를 쓸 때 일본지식층이 깜짝 놀랄만치 유식하게 써야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박준영 씨라는 분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일본 가서 안계시지만 그 분은 옛날의 문어체, 유식한 고어 이런 걸 자꾸 집어넣어 쓴 단 말이지요. 그 래야 일본사람들도 방송을 듣고 우리나라 지식의 수준을...”(방송, 1965.12.11., 5면)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이에 일본인과 재일교포를 상대로 방송되고 있는 KBS의 대일방송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그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을 재검토하는 합평회가 1959년 4월 16일 방송문화연구실 주최로 개최하는 한편(주간방송, 1959.4.19)⁵⁾, 1959년 4월 12일부

5) 합평회를 통해서, 대일방송 담당자들은 ‘씨그날 뮤직’(아리랑)을 비롯해서 호출부호

터는 동포로서의 애국심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일방송에 우 리말 방송 15분간을 매일 아침 6시 15분부터 15분간 방송하기도 하였다 (KBS연감편찬위원회, 1961, 87쪽 ; 주간방송, 1959.4.12., 1면).

표 1. 대일방송의 주간 프로그램 편성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방송 내용	뉴스해설 민요 국내신문 논평	뉴스해설, 동요, 풍토소개	뉴스해설, 청취자의 시간	뉴스해설, 가요곡, 조국의 발전상	뉴스해설, 우리가곡, 역사얘기	뉴스해설, 음악의 밤	주간뉴스, 레코드음악, 소설낭독

* 출처 : 이인선, 1957, 12쪽

방송시간이 종전의 두 배인 30분으로 연장된 1957년 6월 1일 이후의 일 주일 간의 기본 프로그램은 대체로 <표 1>에서 보는 바 같다. 다른 나라의 일본어 방송과는 달리 해외방송이란 테두리 안에서 한걸음 벗어나 대일방송은 60만 재일교포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으로 당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해설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즉, “재일동포의 상당수가 조선인 연맹(朝總聯)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휘둘리고 있어 이들 좌경에 떨어진 동포들에게 공산운동의 파괴적인 면모를 폭로 지적하여 올바른 국내 및 국제 정세를 파악하도록 정확한 국내 소식과 국제문제를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 보통 각국에서 이 민족에게 보내고 있는 해외방송과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이인선, 1957, 12-13쪽)르다는 인식이 뉴스해설에 많은 주안점을 둔 배경이었다(윤상길·이정훈, 2019, 39쪽).

이에 따라 30분으로 연장된 일본어 방송의 경우, 1957년도에 접어들어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 온 청취자들의 월별 편지 통수 - 1월 19

를 내는 방법, 프로그램 구성방법, 뉴스해설, 15분짜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중간음악, KBS대일방송의 특징, 신설되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주간방송, 1959.4.19., 1면).

통, 2월 13통, 3월 37통, 4월 47통, 5,6월 98통, 7월 숫자미상, 8월 100통, 9월 103통, 10월 104통 - 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일방송에 대한 제일동포 청취자들의 청취율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었다(이인선, 1957, 13쪽). 또한 1958년 4월에는 이것이 139건으로 경증 늘어, 이러한 비례로 청취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일본어 방송이 점차로 뿌리를 깊게 박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김일동, 1958, 18쪽).

3) 4.19와 대일방송의 변화

4.19 혁명 이후 대일방송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운영방향 상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4.19 혁명 이후 사회 각 분야의 정비와 개혁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방송증립에 대한 여론이 고조된 바 있는데, '방송법안', '전파관리위원회 설치', '한국방송협회 설치법안' 등 방송관련 법률안 요강을 작성, 검토 심의한 자료인 <방송관계법률 심의요강>(1960년) 중 한국방송협회 설치법안 요강(要綱)에 서술된 협회설치의 목적에는 대일방송을 비롯한 대외방송의 정책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1) 전국민이 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송을 통한 민족 문화의 보존, 향상을 도모한다. 3) 국민교육의 보급화를 꾀한다. 4) 방송을 통한 국제적인 이해와 친선을 도모한다. 5) 방송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쓴다. 6) 對隣性지역방송을 행한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⁶⁾, 이 법안은 민주당 정부가 한국방송협회로 하여금 “전국민의 복지를 위한 방송기

6) 2공화국시기 방송제도 개혁과 방송법 제정시도와 경과에 대해선 박용규(2005)의 연구를 참고바람.

관으로 공공성이 더욱 짙고 해외방송과 대적성방송의 임무를 부과"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통해 민주당 정부가 대외방송의 강화를 위해 민간영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2공화국 시기 대일방송의 변화에 대한 실증자료의 발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나, 다음의 〈주간방송〉(1961.2.5.)에 게재된 어느 일본대학생이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 아나운서로 활약했던 이우백(李愚伯)에게 보낸 편지에 개략적이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리와 역사를 좋아했던 고로 여행을 하면서 경승 고적을 찾은 것이 저의 유일한 취미입니다. 2년 전 어느 날 라디오의 다이얼을 무심히 돌려본 즉,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방송이 귀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이었습니다. 그후 오늘까지 화요일의 풍토소개와 역사를 듣는 것이 일과의 하나가 되었으며 언제나 이 시간이 되면 만사를 제쳐 놓고 다이얼을 970KC에 돌리고 있습니다....(중략)....이형! 저는 법정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23세의 일본학생입니다. 이전에 수요일 밤 청취자 시간에 편지하려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양단되어 있는 나라인 고로 제3자적인 입장에 처해있을 것 같으면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며, 평화선이라든가 불쾌한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붓을 들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중략)....우선 요즘 들리는 KBS의 방송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그것은 북경방송과 같은 수법으로부터 차츰 '유모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경방송 뿐만 아니라 '一方交通방송' 선전 방송'에는 '타이베이' '바티칸' '미국의 소리' '모스크바' '평양' 등 많이 있습니다만, KBS도 지난 여름 전까지는 이들과 비슷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스트레일리아', 'BBC', '화란', '윈' 방송과 같이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도 즐거운 방송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주간방송, 1961.2.5., 6,8면).

1959년 무렵부터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을 즐겨 청취 하였던 일본인 대학생은 <청취자 시간>에 편지를 보내려고 했으나 평화선 논란 등으로 편지 쓰기를 주저하던 중 편지를 보냈던 것인데, 이 편지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첫째 1960년 여름 무렵부터 기존의 일방적인 선전방송에서 탈피하였다는 점, 둘째는 ‘평화선’의 외교적 마찰에 대응한 기존의 메시지 전략이 일반 일본인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주었다는 점이다. 변화의 구체적인 경과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4.19혁명 이후 자유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컸던 만큼, 대일방송 또한 일정정도 기존의 일방적인 선전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자유대한의 소리’ 방송과장이었던 김진영의 신년포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1961년부터 “대일방송은 한일 간의 우호친선이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보다 건설적이며 우호적인 일본어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60만 재일교포로 하여금 혁명으로 이룩된 새 공화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한국어방송으로 쇄신할 계획”(주간방송, 1961.1.1., 6면)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그 구체적 실현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1961년 무렵부터 대일방송은 새롭게 출범한 제2공화국에 대한 선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1961년부터는 대일방송의 청취자 수 증가가 확인된다. 이는 “4월 혁명 이후 갑자기 한국 정세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실과 그들 대부분이 말하듯이 프로그램 내용이 충실하고 공산국가에서 풍기는 선전색이 없으며 정답게 느껴진다는 데에도 기인”(주간방송, 1961.4.9., 6면)한 것이었다.

또한 4.19 이후 대일방송의 방송시간도 1시간(1960년 10월 15일부터 일본어 45분, 한국어 15분)으로 연장됨에 따라, 방송국에 접수된 일본 학생들의 요구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대일방송 초창기부터 애청해온 그는 15분 방송이 짧게 느껴왔으나 한 시간으로 증설되니 기뻐했다고 한다. 단 두 차례로 보내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달랐으면 한다는 사연으로 실은 현재 제2방송을 통한 것 이외에 단파도 똑같은 프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대부분의 청취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학교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그룹활동 등에 관해 자문해 오고 있고 따로 학생의 시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도 있다. 방송횟수를 늘려달라는 것과 한국의 산업계나 문화계, 그리고 풍토소개는 계속 들려달라는 의견이 절대적이며, 오락프로를 마련해 달라는 이도 적지 않다.

수신상태는 단파보다 오히려 중파(970KC)가 양호하다고 하는데, 동경 근방에서는 일본의 민간방송 '동경방송'(950KC)과 간혹 혼신한다고 한다. 다른 지방에서는 모스크바 방송이 강하게 들어오니 싸이클을 변경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주간방송, 1961.4.9., 6면).

3. 수렴 : 대만의 심리전방송 모델 채택과 對日방송의 강화

195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 대립과 그에 따른 선전방송으로 서의 대일방송 개시가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과열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1일에 단행된 독립방송국 '서울국제방송국'의 출범은 대만의 대공(對共)방송 모델을 수용하여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 '시험기는 지났다'는 정순일의 표현대로 이전 시기의 '2중방송'의 기술적·제도적 틀⁷⁾에서 한 단계 도약한 '심리전의 요람'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수렴선에 해당한다.

7) 1950년대 대외방송의 기술적·제도적 기반에 대해선 윤상길·이정훈(2019)의 연구를 참고바람.

또한 기존 대일방송의 주된 의도가 평화선을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 상황 속에서 상대 국가의 영토로 방송전파를 보냄으로써 선전전을 강화하는 것이었고 재일교포의 사상적 이탈을 막기 위한 사상심리전(思想心理戰)의 의도가 부차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서울국제방송국’ 출범 이후의 대일방송은 대만의 대공(對共) 방송 모델을 근간으로 하여 대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더불어 정부의 다변화 외교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측면에서 자유우방 국가들과의 상호 문화교류에 치중한 ‘국제방송’으로서의 성격이 결합된 것이었다.

1) 대만 심리전방송 모델과 서울국제방송국의 출범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의 방송분야에 대한 조치 중에서 거의 시간적 지체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서울국제방송국의 출범은 그 정책적 우선순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련 정부문서가 없어 확실히 얘기할 순 없지만 1961년 6월 25일자 <주간방송>에 “혁명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방송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는 언급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대체로 정책결정은 6월 초 무렵에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한국 외교정책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구상은 대체로 5.16 군사쿠데타 전후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에 들어와 한국은 국내적으로 5.16군사쿠데타에 의한 새로운 정부의 수립과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아프리카 중립세력의 등장 및 미소의 화해에 의한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변외교를 적극 전개하였다. 특히 5.16 이후 한국 정부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의 소극적 고립외교를 지양하고 對중립국 적극외교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었다⁸⁾(외교부, 1979, 28쪽). 1961년

8) 5.16 직후인 1961년 6월 28일 정부는 5개 친선사절단을 편성하여 제1반은 미주지

6월 말 무렵, 이미 결정된 서울국제방송국 설립에 대해 최준(1961.6.25)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방 여러 나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절대로 필요로 하는 나라도 없을 것이니, 국제방송국의 발족과 그 능동적인 활약이야말로 기대되는 바가 큼도 드물 것”(최준, 1961.6.25., 1면)이라고 하여 기대감을 표명한 것에 비추어보면, 1960년대 초 다변외교의 정책과 국제방송국 설치에 대한 구상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아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21일자 방송전문지 <주간방송>에 ‘대만의 심리전방송’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는 점이다. 단순한 시간적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대만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외교관계를 수립한 최초의 국가라는 사실⁹⁾, 그리고 이전 시기 한국 대외방송의 역사에 있어서 대만의 심리전 방송이 수행했던 역할을 생각해 보자면, 이 기사에 소개된 대만의 심리전방송은 서울국제방송국 설립의 모델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6.25전쟁기간 중인 1952년 12월 10일 우리나라 방송계에 다시금 해외방송의 형태가 나타났다. 중국(대만)정부에서 제공하는 ‘반공인민의 소리’(反共人民之聲)라는 중국어 프로그 서울중앙방송국 전파를

역 13개국을, 제2반은 동남아시아 15개국을, 제3반은 중근동지역의 12개국을, 제4반은 유럽지역 17개국을, 그리고 제5반은 아프리카지역 19개국을 맡아 동년 7월부터 각각 순방토록 하여 61개국에 대한 개별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1962.3), 버마(1961.8), 인도네시아(1966.8), 파키스탄(1968.1) 및 네팔(1969.7) 등 중립국과 領事관계를 수립하고 몰디브공화국과도 외교관계를 수립(1967.11), 대아시아 지역 외교망이 크게 확장되었다(외교부, 1979, 28~29쪽, 114쪽).

9)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의 한국 외교는 정부수립에 따른 諸國의 국가승인 획득 및 자유우방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제1차적 목표가 있었다. 대아시아지역 외교도 이러한 기본목표에 입각하여 한반도 내 유일 합법정부로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고 아시아의 신생 反共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49년 1월 대만이 한국을 정식으로 승인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을 필두로, 필리핀(1949.3), 베트남(1955.10), 태국(1958.10)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특히 대만 및 필리핀과는 상주공관의 개설(각각 1949.7 및 1954.1)에 합의하였다(외교부, 1979, 27쪽).

타고 우리나라에 침입한 중공군을 대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대만)정부가 제작한 프로그램의 중계방송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우리가 만든 국제방송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정량, 1983, 58면, 괄호는 필자).

이 인용구에서 알 수 있듯이, 6.25전쟁 기간 동안 사실상 유엔군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었던 KBS네트워크를 통해 대만의 심리전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이 방송관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59년 말 시점에도 여전히 대만의 대공 프로그램이 KBS의 협조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다(윤상길·이정훈, 2019, 34쪽).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대한의 소리’ 대북방송 담당자인 이원희가 대만정부의 초청을 받아 1961년 4월 말 대만의 심리전방송 시설을 시찰한 시찰보고서 성격의 기사가 5.16 군사쿠데타 직후 방송전문지에 실렸다는 사실은 충분히 대만의 심리전방송 모델이 당시 정책결정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다소 길지만 이원희의 글을 항목별로 보면서 대만의 심리전방송 모델이 서울국제방송국에 어떠한 영감을 주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자유중국은 자체역량의 배양과 병행하여 중국대륙에 대한 심리전 방송에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유중국 내에는 현재 半官半民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7개가 있고 민간방송국이 5개 있다. 12개나 되는 방송국들이 관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방송까지도 각각 그들의 독립적 성격과 목적에 의한 국내 방송을 실시하면서 모두 중국대륙 인민을 향하여 심리전 방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방송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전 방송은 대내방송에 못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영방송국은 中國廣播公司를 비롯하여 中國廣播電台, 軍中廣播電

台, 空軍廣播電台, 復興廣播電台, 幼○廣播電台 이상 7개이고, 민영방송국은 正聲廣播電台, 民聲廣播電台, 中華廣播電台, 華聲廣播電台, 民本廣播電台 이상 5개가 있다. 이 모든 방송국이 연합작전 식으로 중국 대륙을 향하여 中波 32개와 短波 23개, 모두 55개의 주파수로 심리전 방송을 실시하여 중국대륙전역을 완전히 전파로 뒤덮고 중공 차하인민들이 라디오의 어느 곳으로 '다이얼'을 돌려도 '자유중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방대한 심리전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여러 개의 방송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대륙에 대한 심리전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방송을 하기 위하여 中央廣播電台(中央放送局을 의미함)의 대륙부가 중심이 되어 종적으로, 횡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을 맺고 있는 것이다.

자유중국 대만 내에 있는 12개의 키 스테이션과 로컬 스테이션까지 합하여 51개의 방송국 전체가 현재 전파를 발사하고 있는 주파수의 총수는 모두 120개인데, 그 가운데 중국대륙을 향하여 발사하는 심리전 방송의 주파수는 55개에 달하므로, 주파수 상으로만 보아도 심리전 방송에 이용하는 주파수는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유중국의 심리전 방송은 대내방송과 거의 같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방송계의 총력전으로 감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중국대륙에 대한 심리전 방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 방송을 전담하고 있는 中央廣播電台的 현황만을 간단히 소개 하겠다. 中央廣播電台에서 대륙에 보내는 심리전 방송의 최대 출력은 600KW인데, 이 출력은 150KW의 송신시설로 지향성을 이용하여 4배의 효력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방송국에서만 대륙을 향하여 송신하는 주파수는 중파, 단파를 합하여 10개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직원은 모두 164명이며 1일 방송시간은 17시간 25분에 달하고 있다. 이 방송시간 가운데는 매일 뉴스가 14회 방송되며 이 뉴스의 총 방송시간은 매일 3시간 45분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여러 가

지 방어가 많은 관계로 표준어인 북경어와 4개 지방어 모두 5개 언어로 방송하는 친절까지 베풀고 있다(이원희, 1961.5.21., 6면).

이원희가 대만의 심리전방송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중국 대륙에 대한 심리전 방송에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방송계의 총력전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전 방송에 대한 국가와 민간방송의 전폭적 지원과 그에 따른 사용 주파수 수와 방송출력에 있어서의 엄청난 규모였다. 또한 심리전 방송에 종사하는 인력 수나 1일 방송 시간 또한 주목해서 서술되고 있다. 또한 다음의 인용구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전 방송의 규모 다음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제작시스템이었다. 여기서 이원희가 주목한 제작시스템은 정책결정과 조직적인 분업이었다.

그럼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심리전 방송을 제작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먼저 국가정책에 따라 심리전방송 정책회의가 매주 화요일에 소집되며, 이 회의에서 방송의 방향과 성격 등 기본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이 정책회의에는 각 방송국 프로그램 책임자를 비롯하여 정부의 공보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신문국의 책임자, 각 정당선전책임자, 심리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 정책회의에서 기본방침이 결정되면 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전략적 결정, 기술적 연구, 주제 책정,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방송실무자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방송이 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섬세하게 방송을 제작하면서 분업적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정규방송 이외에도 3면이 중공대륙을 포위되어 있는 금문도에서는 2KW의 송신시설로 중국본토를 육안으로 내다보며 방송을 하는 한편, 라우드 스피커를 통하여 직접 육성으로 심리전을 감행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자극적이 아닐 수 없다. 지면관계로 보다 더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나 한 마디로 말하여 자유중국의 심리전

방송은 세계적으로 그 규모나 형식 면에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대공투쟁 면에서 자유중국과 공동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후략)....(이원희, 1961.5.21., 6면)

이윽고 1961년 6월 23일 종전 서울중앙방송국의 제2방송을 ‘서울국제방송국’으로 독립·승격시키고 7월 1일 서울국제방송국을 발족시켰다. “동방송국은 서무과, 대공과, 해외과, 기술과, 송신소(수원) 등으로 기구가 편성되어 있어 약 120여명의 직원을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방송국도 기구가 확장되어 편성과가 새로 독립하게 되어 결국 서무, 편성방송, 기술과, 송신소(연희) 등으로 편성되게 되었다”. 초대 국제방송국장으로 취임한 윤길구(尹吉九)가 밝힌 포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국제방송국은 대공 심리전 방송과 해외선전의 강화에 주력하였다(주간방송, 1961.7.2., 2면). 또한 체신당국에서는 7월 1일부로 새로 발족한 서울국제방송국의 호출부호를 HLCA로 지정하였고, 국제방송국의 주파수 970KC에는 이동이 없고, 국제방송은 이외에도 단파 9,640KC, 11,925KC, 11,950KC, 17,525KC, 17,815KC 등의 주파수로도 방송하였다(주간방송, 1961.7.9., 2면).

물론 그 시설과 조직의 규모 면에서 대만의 심리전 방송에 비할 것은 아니었지만, 서울국제방송국은 동아시아 반공국가연합 중의 하나로서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국교를 맺은 대만의 심리전 방송을 참고로 하여, 한국의 대외방송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한 일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1960년대 대일방송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 사진 = 국제방송주간관윤길구 있다 (左측尹吉九과右측주간관)

그림 3. 현판식 장면
* 출처: <주간방송>, 78호, 2면

2) 대일방송의 강화와 대공적 성격

서울국제방송국(HLCA) 출범 이후, “국제방송은 크게 대공(對共), 해외(海外), 대일(對日)방송으로 삼분되어 추진되었다”(주간방송, 1962.6.17., 5면)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대일방송은 여러 해외방송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우선 대일방송은 방송시간의 양적인 측면에서 대폭적으로 연장되었다. 당대의 평가로는 가히 ‘획기적인’ 변화였다. 발족과 함께 대일방송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1961년 8월부터 <표 2>와 같이 1일 3회의 방송을 실시하였다(정순일, 1961, 32면). 방송시간은 더욱 확대되어, 1962년 10월에 가서는 방송시간을 한층 강화하여 일본어로 5시간, 우리말로 한 시간, 합계 6시간을 방송하게 됨으로써, 대일방송시간에 있어서 모스크바, 북경의 당시 4시간, 3시간 반 방송시간을 추월함으로써 방송시간으로 봐서는 세계 제1위로 올라선 일이 있었다(방송, 1965.12.11., 4~6면).

표 2. 1961년 8월 당시 대일방송의 편성과 시간

회차	방송시간	내용
1회	11:00~12:00	한국어 15분, 일본어 45분(단파)
2회	18:30~19:30	일본어 60분(단파)
3회	21:00~22:00	일본어 15분, 한국어 45분(중파, 단파)

*출처 : 정순일, 1961, 32면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도 5.16 직후엔 “5.16의 진의를 일본인과 재일 교포에게 똑똑히 알리고자 <혁명의 물결>, <새로운 출발>, <외국인이 본 혁명>, <혁명의 그 후>, <혁명의 이모저모>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후 1달 단위로 네 차례에 걸쳐 개편을 단행했는데, 개편의 목표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고 이러한 목적과 수단에 알맞은 프로그램들로서 <서울의 일본인>, <한국 옛 얘기>, <목격자는 말한다>, <한국ABC사건> 등을 방영하였다(정순일, 1961, 32면).

- ① 특히 민간방송의 부드러운 방송에 젖어온 일본인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방송을 낸다(다시 말하면, 일본의 민간방송인지 외국의 방송인지 얼른 들어서 모를 정도의 부드러운 방송을 내어 우선 듣게 한다).
- ② 우리나라의 문화, 풍습, 전설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은연 중 그들이 느끼게 하고, 친근감을 갖게 한다(그들의 잠재의식을 親韓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 ③ 특히 한일회담이 우리의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일본국민에게 우리의 주장을 감정적인 면에서 호소하여 그들의 공감을 얻고 일본국내의 여론을 호전시킨다.
- ④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에게 최대한으로 '마이크'를 개방하여 대일방송의 신용도를 높인다.

이러한 개편 목표에 의거하여 실제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부자연스럽게 느끼지 않게 개편하였다고 아나운서 이우백(李愚伯)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물론 이 당시의 특징이라면 시간도 시간이라니와 프로를 대폭적으로 변경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크프로였던 것을 대폭 손질해서 DJ나 음악을 위주로 해서 일방적인 선전방송이라기 보다 부드러운 가운데 일본사람들이 즐겨 들을 수 있는 방송에 중점을 두어, 프로를 개편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더 든다면 당시에 아시아야구대회가 있었는데 외국어아나운서로서는 최초로 야구중계를 직접 일본말로 중계한 것이 있겠고 프로에서도 다른 나라 해외방송 코너에서는 볼 수 없는 텔레폰 리퀘스트 〈전화로 현해탄을〉이라는 것을 만들어 청취자와 우리 대일방송의 실무자들과의 간격을 좁히는데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1965.12.11., 4~6면).

한편, 1962년에 들면 공보부는 대일방송을 더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서 대일방송을 KBS네트워크의 지방국에서 송출하도록 하였다. 즉, 3월 10일부터 서울국제방송국의 대일방송시간에 송출된 같은 내용을 녹음중계하는 방식으로 매일밤 30분씩 KBS네트워크인 부산방송국(HLKB)과 강릉방송국(HLKR)의 전파를 통해서도 대일방송을 시작하였던 것인데, 부산과 강릉방송국을 선정했던 이유는 일본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청취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주간방송, 1962.3.18., 2면). 또한 국제방송국 자체 내에서는 프로그램 모니터를 시행하여 프로그램 개선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¹⁰⁾(주간방송, 1962.6.17., 5면).

여기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강화된 대일방송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자유대한의 소리’ 방송에 있어서 대일방송의 위상이 격상된 이유이다. 발족과 함께 대일방송은 ‘한일관계의 타개와 재일교포의 애국심을 유발시킨다’는 국제방송운영지침에 따라 앞에 살펴본 것처럼 프로그램 시간을 대폭 확대시켰던 것인데, 이 국제방송운영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대일방송 위상강화의 주된 이유는 재일교포의 애국심 유발을 통한 ‘반역자의 사전예방’에 있었다. 이는 다음의 최준(1961.6.25)의 언급에서도 확인되는 바처럼, 결국 1950년대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과열선이 본래 문화냉전의 기초로 수렴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말 방송의 뜻은 더욱 크다 아니할 수 없겠다. 왜냐하면 약 70만의 동포가 일본 각지에 살고 있으며 그 중의 많은 수호가 소위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에 소속되고 있어 조국인 대한민국에 반역하여

10) 이 모니터 기사에 의하면, “對日방송은 점진적으로 좋아져가는 혼적이 여실이 보인다. 지난 3월에 신설된 <라디오연락선>(문화워클리) 등은 특히 호평. 그러나 흠이라고 하면, 우리말을 직역한 일본어 문장이 혼하다는 것이다. 방송발음의 오독(誤讀)을 지적하였고, 실무자의 교양과 책임감에도 호소했다.(후략)....”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최준, 1961.6.25., 1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대일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이었다는 점이다. 즉, 경제개발을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정부의 대일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재일교포의 사상적 이탈과 반역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대일방송의 대공적 성격을 강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대비하여 한국 측의 주장을 이해시키는 방향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딱딱한 선전방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송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65년 ‘대일방송 10년 회고’ 좌담회에서 대일방송 담당자였던 윤태로와 노정팔의 언급에서 확인된다.

▲ 尹泰魯 = 그동안 방송이 국제방송으로 발전했고 제가 그 당시 제2과 해외과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그 동안 정책적인 변경이라고 할까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처음에는 평화선 공포의 의의에 주력을 두었고, 그 다음에는 한일회담 진전에 따른 우리의 주장을 주로 방송했습니다. 그 다음 재일교포 북송문제가 클로즈업 되었을 때 그 非인도성을 규탄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한일관계에 관한 한국측 주장을 이해시키는 이런 방향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盧國장님이 관리과장으로 계속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관리국으로서의 입장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盧正八 = 지금이나 그때 입장이 별로 다른 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교정상화보다 우리 평화선에 대한 주장이라든가 이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지만 혁명 이후에는 대체로 한일국교정상화를 하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라든가, 왜 하고자 하는가 라든가 이런 것을 일

본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도 대일방송의 중요한 방향이나 정책이 뭐하면 우리나라의 입장, 특히 국제적인 입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정책, 우리나라의 주장을 일본국민에게 알리는 문제,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었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한 왜 한일국교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또 우리가 對共戰의 보루로 있으면서 대공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북괴와 중공의 만행,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 어느 해외방송이나 마찬가지로 자기나라의 풍토라든가 습관, 지리, 역사, 이런 것을 알림으로써 서로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고 우의(友意)를 돈독히 한다는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일본에 많은 우리교포들이 있기 때문에 교포들한테 조국과의 유대감을 두텁게 하는 것, 또 그들에 대한 조국애를 고취한다는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일방송의 하나의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방송, 1965.12.11., 5면).

4. 맺음말

냉전기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은 동아시아 냉전의 문화적 양상이 ‘공산 vs 자유’라는 ‘하나의 충돌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역사적 사례에 해당한다. 동아시아 전파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KBS는 대일방송을 통해 미국 주도의 냉전 전파전에 파열음을 냈었던 반면, 한국이 국교를 맺은 첫 나라였던 대만과는 매우 긴밀한 협조체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KBS의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이 개시된 1955년 전후 시점부터 KBS의 대외방송이 강화되는 1960년대 초반기를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시각에서 KBS의 대일(對日)방송이 등장, 변용되어가는 과정을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파열과 수렴’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문화냉전이 파열되는 시초는 식민지 시기로부터 주어졌지만 파열은 6.25전쟁기를 거치며 본격화되었다. 6.25전쟁기 사상심리전 매체였던 VOA와 VUNC의 중계를 위해 유엔사령부가 NHK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됨으로써 NHK의 방송출력은 증강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도치 않게 한반도가 사실상의 일본방송 권역에 포함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경계는 냉전질서라는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 흐려지게 되었고, 이는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일본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과의 문화적 경계가 흐려지는 1950년대 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해양의 국가경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이 격화되는 1955년 무렵, 상대 국가의 영토로 방송전파를 보냄으로써 선전전을 강화하고자 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은 개시되었다. 그러나 4.19 혁명으로 인해 자유언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컸던 만큼, 대일방송 또한 일정정도 기존의 일방적인 선전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한일 간의 외교적 대립이 만들어내는 문화냉전의 파열은 점차 수렴되는 징후를 보였다.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1일에 단행된 독립방송국 '서울국제방송국'의 출범은 이전 시기의 '2중방송'의 기술적·제도적 틀에서 한 단계 도약한 '심리전의 요람'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파열되었던 동아시아 문화냉전이 다시 수렴되는 첫 출발점이었다. 무엇보다 서울국제방송국의 모델이 같은 처지의 반공국가였던 대만의 심리전방송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또한 1961년 7월 '서울국제방송국'의 발족 이후 표면적으로는 대일방송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이 정책방향은 경제개발을 위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했던 박정희 정부의 대일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재일교포의 사상적 이탈과 반역을 예방하고 이를 위해 부드러운 선전방식을 채택하는 등 대일방송의 대공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정책이 낳은 결과였다. 이로써 1950년대 동아시아

아 문화냉전의 파열선은 1960년대에 들어 본래 문화냉전의 기조로 수렴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렇다면 본고의 연구결과가 함의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 기시 도시히코와 쓰치야 유카(貴志俊彦·土屋由香, 2009/2012)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시아는 냉전 하의 유럽과 달리 미국이 (VOA 등과 같은) 선전활동을 통해 구축하려고 했던 세계상을 그다지 쉽게 수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매력으로 미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소프트파워가 아시아에서는 반드시 효과적으로 발휘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냉전 초기의 아시아 각 지역은 저마다 미소(美蘇)의 정치전략을 수용, 또는 반발하면서 국내 정치세력의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각자의 전후를 구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19~26쪽).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탈식민지화 이후 냉전질서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한일 관계는 한반도가 일본의 방송권역에 포함되는 식으로 문화적 경계가 흐려지게 되었지만 영토적 경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이 격화되는 특수성을 배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한 한일 관계 속에서 탄생한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즉, 태생적 한계 상 ‘자유대한의 소리’ 일본어방송은 1950년대에 (윤상길·이정훈(2019)의 연구결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뉴스해설 위주의 일방적인 선전방송을 채택하는 ‘파열의 양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4.19 혁명 이후 이승만 정권시기의 ‘평화선’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에 대응한 기존의 메시지 전략이 일반 일본인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주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민주당 정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한일 간의 외교적 대립이 만들어내는 문화냉전의 파열은 점차 수렴되는 징후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 우방인 대만의 심리전방송 모델을 채택하고 대외방송을 전문

으로 하는 서울국제방송국을 출범시켜 대일방송의 대공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파열선이 수렴의 방향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수렴과정에 1961년 출범한 미국 케네디 행정부가 1950년대보다 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던 대한(對韓)정책의 변화¹¹⁾가 크게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이는 미국의 원조와 차관에 의존하고 있어서 미국의 외자승인 없이는 그 성립여부를 생각할 수 없었던, 1962년 9월에 완공된 500Kw 대전력송신소(남양송신소)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양송신소를 비롯한 대전력송신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재한 현재로선, 이 대전력송신소의 건립이 대만 심리전 모델을 근거로 추진되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동아시아 문화냉전의 '수렴'에 대한 본고의 연구결과는 다분히 잠정적 결론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보완작업은 1950, 60년대 수원송신소와 남양송신소 건립과정에 대한 향후 작업을 통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1) 케네디 행정부의 대한정책과 한일관계 정상화 강조와 관련해서 박태균(2006, 제4부)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 김성민 (2017). <일본을禁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대중문화사, 1945-2004>. 부산: 글항아리.
- 김영희 (2014). 1960년대 VUNC(유엔군총사령부방송) 프로그램과 청취양상. <언론정보연구>, 51권 1호, 180-213.
- 김영희 (2012). 1960년대 VUNC(유엔군총사령부방송)의 운영과 폐쇄. <한국언론학보>, 56권 5호, 244-269.
- 김영희 (2009). 한국전쟁 기간 미국의 대한(對韓) 방송활동.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140-160.
- 김일동 (1958). 청취자 투고는 상승일로. <방송>, 1958년 12월호, 18면.
- 김을한 (1971). 방송계에 바란다. <월간방송>, 1971년 9월호, 24-25면.
- 박용규 (2005). 2공화국 시기 방송제도 개혁과 방송법 제정 시도. <방송문화연구>, 17권 1호, 147-172.
- 박진희 (2005). 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서울 : 창비.
- 방송 (1965.12.11). 대일방송 10년 회고. 4-6면.
- 목동 방송박물관 (n.d). <방송관계법률 심의요강>.
- 윤상길 · 이정훈 (2019). 1950년대 서울중앙방송국 대외방송의 전개과정. <언론정보연구>, 56권 4호, 5-51.
- 외교부 (1979). <한국외교 30년, 1948~1978>. 서울: 외교부.
- 이원희 (1961.5.21.). 자유중국의 심리전방송. <주간방송>, 71호, 6면.
- 이인선 (1957). 대일방송. <방송> 1957년 12월호, 12-13면.
- 장영민 (2014). 한국전쟁기 '미국의 소리'(Voice of Korea) 한국어방송'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계>, 90호, 257-308.
- 장영민 (2012). 한국전쟁기 유엔군사령부의 KBS통제와 지원. <한국언론학

- 보), 56권 1호, 441-464.
- 장영민 (2011). 1952년 '미국의 소리 한국어방송'의 부산정치파동보도와 KBS 중계방송의 중단. <역사와 경계>, 80호, 59-109.
- 장영민 (2009). 해방 후 '미국의 소리(Voice of Korea) 한국어방송'에 관한 연구(1945~1950). <한국근현대사연구>, 50호, 200-253.
- 장영민 (2008). 6.25전쟁기 '유엔군총사령부의 소리'(VUNC) 라디오방송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47호, 280-361.
- 정량 (1983). KBS국제방송30년의 발자취. <월간방송>, 1983년 9월호, 58-62면.
- 정순일 (1961). 시험기는 지났다: 대일방송. <방송>, 1961년 12월호, 32-33면.
- 주간방송 (1962.6.17). 금년도 상반기 모니터 종합보고(하) : CA 대일방송에 눈부신 발전. 5면.
- 주간방송 (1962.3.18.). 대일방송을 더한층 강화, 부산·강릉국서도 전파를 발사. 2면.
- 주간방송 (1961.7.9). 서울국제방송국 호출부호, HLCA로 지정, 주파수는 970KC. 2면.
- 주간방송 (1961.7.2). '서울국제방송국'을 신설, 직제개편에 따른 방송국기구 발표. 2면.
- 주간방송 (1961.4.9). 메아리져 증가되는 반응, 온 세계에 울려 퍼지는 자유대한의 방송. 6면.
- 주간방송 (1961.2.5). 일본에서 온 편지, 강력한 PR을 전개해야 하겠다. 6.8면
- 주간방송 (1961.1.1). 나는 이렇게 하겠다: 각 방송국 편성담당자의 새해포부. 6면.
- 주간방송 (1959.4.19). 대일방송 구체적 강화책을 수립. 1면.
- 주간방송 (1959.4.12). 대북·대일방송프를 강화, 1면.
- 최준 (1961.6.25). 放送春秋: 국제방송국의 발족. <주간방송>, 76호. 1면.
- 최준 (1957). 한국방송사업의 실태. <방송>, 1957년 2월호, 4-6면.
- KBS연감편찬위원회 (1961). <KBS연감 창간호>. 서울 : 삼화인쇄주식회사

小林總明 (2012). 冷戦期アジアにおけるVOAの展開と中継所の世界的配置. 土屋由香, 吉見哉 編(2012). 占領する眼・占領する聲. 東京: 東京大學出版会.

小林總明 (2009). VOA 施設移轉をめぐる韓米交渉, 1972~1973.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No.75, 129-147.

丸川哲史 (2005). 〈冷戦文化論 - 忘れられた曖昧な戦争の現在性〉. 장세진 역 (2010). 〈냉전문화론: 1945년 이후 일본의 영화와 문학은 냉전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서울: 너머북스.

貴志俊彦・土屋由香 (2009). 〈文化冷戦の時代 - アメリカとアジア〉. 김려실 역(2012). 〈문화냉전과 아시아〉. 서울: 소명출판.

李在武 (1981). 韓國の對日放送の變遷と現狀. 〈慶應義塾大學新聞研究所年報〉, No.16, 63-72.

KBS日本語放送 편 (2005). 〈KBS日本語半世紀の物語〉. 서울: 韓國放送公社.

Cummings, B. (1992). *The Wicked Witch of the West Is Dead, Long Live the Wicked Witch of the East*. Hogan, Michael J.(eds). *The End of the Cold War: its meaning and im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won, H. (2010). *The Other Cold War*. 이한중 역(2013).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적으로 본 냉전의 역사〉. 서울: 민음사.

투 고 일 자: 2019년 10월 16일

심 사 일 자: 2019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30일

Abstract

'Voice of Free Korea' Japan-targeted Radio Broadcasting in the Period of Cold War:

Ruptures and Convergence of the East Asian Cultural
Cold War

Sangkil YOO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Shinhan University

'Voice of Free Korea' broadcasting of Japanese language by KBS constitutes a historical example of the cultural aspect of the East Asian Cold War that "did not exist as a single conflict" of "Communist vs. Freedom". While KBS, which was in charge of one of the pillars of the East Asian radio war, had a ruptured sound in the U.S-led Cold War radio war through its broadcast to Japan, it had shown a very close cooperation system with Taiwan, which was the first country in whic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In this study, we wanted to take a look at the process of the emergence and transformation of KBS's Japan-targeted broadcast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pture and convergence' of the East Asia Cold War, focusing on the early 1960s when KBS's international broadcasting was strengthened from around the time of its launch in 1955.

The beginning of the rupture of the East Asian Cultural Cold War was given from the colonial period, but the rupture began in earnest through the Korean War. NHK's broadcasting power could be boosted by the use of NHK network by the UN Command for broadcasting of VOA and VUNC, which were psychological warfare

media during the Korean War, which inadvertently led to the Korean Peninsula being included in the de facto Japanese broadcasting zone. This has clouded the cultural boundaries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the geopolitical conditions of the Cold War order, which allows them to listen to Japanese broadcasts on a daily basis even after the war. Amid this blurring cultural boundaries with Japan, the 'Voice of Free Korea' broadcasting of Japanese language by KBS was launched around 1955, when the diplomatic row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maritime border intensified, at the instruction of President Syngman Rhee, who wanted to intensify the propaganda campaign by sending broadcasts in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untry. However, as the 4.19 revolution raised social expectations for the free press, broadcasting to Japan also showed signs of gradually converging the rupture of the cultural Cold War created by the diplomatic confron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s was removed from the conventional one-sided propaganda-oriented method.

The launch of the independent broadcasting station "Seoul International Broadcasting Station" on July 1, 1961, shortly after the 5.16 military coup, was the first starting point for the reconvening of the East Asian cultural Cold War, which was ruptured in terms of the birth of the cradle of psychological warfare, a step taken from the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previous period'. Most of all, it was because the model of the Seoul International Broadcasting Station was a psychological warfare broadcast by Taiwan, which was an anti-communist country in the same situation. It was also the result of a policy aimed at enhancing the anti-Japanese character by preventing ideological departures and treason of ethnic Koreans in Japan in response to a change in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Japan, which ostensibly sought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for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the rupture line of the East Asian Cultural Cold War

in the 1950s changed in the 1960s to converge into the original principle of the Cultural Cold War.

KEYWORDS Voice of Free Korea, KBS, Voice of Free Korea, Rupture, Convergence